

---

2000年度行政事務監査 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被監査機關 技術審査擔當官, 品質試驗所

---

日時 2000年6月20日(火) 午前10時

場所 建設委員會會議室

---

(10時 49分 監査開始)

○委員長 閔鍊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제36조와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技術審査擔當官 및 品質試驗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범한 제5대 전반기 의회가 벌써 1년 11개월이 지나고 불과 1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우수같다고 하지만 짧지 않은 2년 가까이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姜榮元委員님과 趙泰鎭委員님께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세미나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

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신 위원님 여러분과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북경시의회를 방문하시어 양 도시간 우호증진에 기여하신 任東淳委員님께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제18회 정례회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던 정례회를 두 번에 나누어 실시하도록 변경되어진 地方自治法 제38조와 地方自治法施行令 제19조와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및 의회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본 정례회 기간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및 추경예산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로서 피감사 대상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는 건설기술 심의업무의 총괄·조정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부실건설 공사의 사전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서울시 기술행정의 핵심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심분 활용하시어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준엄히 심판하고, 차후개선 및 방향설정을 위한 높으신 고견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李仁根 擔當官 및 李益柱 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 여러분, 본 감사를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제36조 및 同法施行令 제17조의4와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技術審査擔當官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宣誓)

○委員長 閔鍊植;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李仁根 技術審査擔當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技術審査擔當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입니다.

존경하는 閔鍊植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에 저희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추진한 업무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평가받게 된 것을 때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채찍과 충고를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향상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함께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이동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저희 市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裴虎永 조정심사팀장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밀레니엄공원추진반장으로 승진 내정되어 전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技術審査擔當官, 品質試驗所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과 품질시험소에서 금년중에 수행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閔鍊植; 技術審査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李仁根 擔當官 이하 관계공무원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金奇德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奇德 委員; 金奇德委員입니다.

혹시 힘드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무방합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괜찮습니다.

○金奇德 委員; 먼저, 불량레미콘 유통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품질시험에 대해서 감사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建設交通部가 마련한 레미콘 표준시방서에서는 레미콘 생산에서 타설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대기온도가 25도 이상이면 90분 이내, 25도 미만일 경우는 120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건설현장에 반입 타설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레미콘을 운반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 대여사업자들의 모임인 전국콘크리트 믹서트럭협회가 전국회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콘크리트 시방서의 규정시간을 초과한 불량레미콘을 타설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하고, 더구나 굳어가는 레미콘 사용을 위해 물타기도 성행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品質試驗所長은 서울시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 품질관리와 불합격된 레미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品質試驗所長 李益柱입니다.

金奇德委員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건교부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25℃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인 경우는 운반거리 소요시간이 90분, 이상인 경우는 120분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레미콘이 KS제품이기 때문에 이 레미콘에 대한 공장점검은 관련규정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험소는 서울시에서 수요가, 즉 쓰는 입장에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 관련규정에 의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 운영을 금년 연초부터 현재까지 30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30개 현장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7개 현장에서 주로 슬럼프치가 오버가 되어서 반쯤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金奇德 委員; 슬럼프치가 무엇입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슬럼프치는 저희들이 워커빌리티(workability), 즉 시공성 관계입니다. 물을 많이 타게 되면 공사시 타설은 편리하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럼프치를 통상 12cm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는 허용치를 주고 있습니다.

○金奇德 委員; 지금 답변은 이미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 같은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해 레미콘 표준시방서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교통체증에 밀려버리면 대부분 제시간을 못 맞추

거든요.

또 기술심사담당관은 지금 레미콘 공장으로부터 건설현장 타설에 이르는 과정을 실제로 공장은 점검을 해 볼 수가 없고 현장은 점검을 해 봤단 말이지요. 법규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 문제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동반 말고 기술심사담당관이나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건설현장의 타설과정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저는 아직 점검을 못해 보았습니다.

○金奇德 委員; 담당관계서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기동반을 통해서만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간 적은 없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래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동반이 잘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당연히 한 번 정도는 나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당연히 나가 봐야지요.

따라서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해서 품질시험성적 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계속해서 맥락을 같이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265쪽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品質試驗所長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시

내 건설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레미콘 생산 업체 현황과 업체에 출장하여 레미콘에 대한 품질을 점검한 실적 현황이라고 해서 레미콘 생산업체에 대한 점검은 産業標準化法 제24조 및 同法施行規則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기술표준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업체를 방문하지 않으며, 공사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에 대하여는 기동반을 활용하여 서울시내 30개 공사현장의 레미콘 품질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이 산업자원부 소관입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면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장이 하고 있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기동반이 하는 것은 일체감상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품질시험이 형식에 그치는 모순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부서 책임자로서 그런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또 하나 5월 31일 현재 30개 공사현장의 레미콘 품질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금년 상반기중 엄청난 공사현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레미콘 공장이 서울시내에 몇 개 있지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9개입니다.

○金奇德 委員; 7개 업체 9개 공장임을 감안할 때 1개 공장을 기준해서 보면 세 곳만 점검을 했다 이런 증거인데 지나치게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擔當官과 所長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30개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확인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試驗所長 李益柱입니다.

먼저, 공장과 현장점검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KS제품인 경우는 국가가 그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KS제품인 경우는 사실상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법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에 시험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좋은 질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유도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레미콘인 경우는 사실상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의 생산과정이라든지 운반과정, 타설과정 여러 가지 변화과정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동반 업무에서 레미콘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 저희들이 시험소에서 적정성시험이나 품질시험관계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달시간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레미콘이 도착한 송장이 있습니다. 송장을 레미콘 운전기사가 지참했을 때 거기에 보면 레미콘 출하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현장소장 내지 현장에 있는 직원이 도달시간을 사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간 2회씩 저희들이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나갈 때 전 대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최선을 다하려 하고는 있습니다만 레미콘회사나 운반하는 기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교육 내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지금 所長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은 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기술표준원장과 우리 기동반, 즉 공장에 대한 점검은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현장에 대한 점검은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이것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고 산업자원부와 어떤 규정을 고쳐서라도 제도를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두번째는 금년 5월 31일까지 30개 공사현장을 확인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9개 업체인데 불과 세 군데씩만 나누기하면  $3 \times 9 = 27$ 밖에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답변하시지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과 현장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 예전에 저희들이 공장을 점검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에서는 그쪽 공장관계는 산업자원부에서 시스템 관계라든지 기타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계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기동반이나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나갔을 때 송장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기동반은 현장타설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하는 숫자를 좀 늘려서 실질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개소 점검한 관계는 저희들 기동반이 주로 점검한 내용입니다. 적정성 점검이라든지 품질시험확인 나갔을 때 서류상 점검한 내용은 자료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점검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은 확실히 인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네,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산업자원부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는 문제, 그 다음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현장에 나가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바뀌는 사안들이 앞으로 나올 때 본위원에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자료 276쪽입니다.

복개천 가스조사 현황 및 조치내용에서 지금 조사대상 25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네,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이것은 기술담당관 소관이지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제 소관입니다.

○金奇德 委員; 아, 거기입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네.

○金奇德 委員; 우리가 늘 이것 하다 보면 기술담당관, 품질시험소 이래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분이 답변을 해야 될지 헛갈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종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마 이런 문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어느 소관인지. 알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委員長 閔鍊植; 종전에 하던 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소관부서에서 바로바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조사대상 25개 지점에서 발생한 가스발생 농도가 극히 미량으로 인화위험성이 우려되는 지점이 없어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나 향후 인화위험성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전준설 및 환기 등을 조치토록 관리부서에 요청했다고 했는데, 지금 인화 예상지점은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조치토록 한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복개천 가스조사는 청계천 등 25개 지점에 대해서 월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인화가 되려면 가연성가스는 1.5에서 8.5%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더 많아도 폭발이 되지 않습니다. 메탄가스는 5에서 1.5% 사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극히 미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4월말이나 5월초쯤 될 것입니다, 매년 늦은 봄에 하수도가 일부 준설이 안 된 상태에서 정체가 되다 보면 열이 올라가서 거기서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증곡동 지점이라든지 중랑구의 서울우유 부근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폭발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혹시 준설이 안 됐다든지 기타 이런 환기점을 區에서는 그 취약점을 알기 때문에 미리 준설한다든지 미리 맨홀의 뚜껑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을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구청이나 기타 관리부에서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지점을 찍어 가지고 이 부분은 취약하다 하는 것은 아직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면 지금 조치내용을 보면 향후 인화성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전준설 및 환기 등을 조치토록 관리부서에 요청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시점검을 하라 이것입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중요한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金奇德 委員;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복개하천에 대해서입니다.

○金奇德 委員; 청계천이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네, 청계천 등 25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수도 부분 중에서도 하수도가 준설이 안 되었다든지 기타 물이 막혀 가지고 고여 있는 정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온도가 높아져 부식관계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부분적으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조치 했습니다.

○金奇德 委員; 알았습니다. 메탄가스는 5% 내지 15%가

적정선이다 말이죠?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 사이에 발생하게 되면 폭발우려가 있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런데 현재는 0.002에서 0.250,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 예전에 서울우유 부근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때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서울우유공장에서 약간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나간 상태에서 하수도로 나갔는데 하수도가 준설이 되지 않아서 약간 정체된 상태다 보니까 그 정체되어 있는 찌꺼기가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어서 갑자기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폭발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적을 했는데 정확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 다만 그런 원인 등에 의해서 폭발되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알겠습니다. 그 위험도가 가연성가스하고 메탄가스하고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사고가 났을 때는 메탄가스가 더 위험합니다.

○金奇德 委員; 확실합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청계천이 폭발위험이 있다, 그래서 미군들이 그쪽에 통행금지를 시켰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기자들까지 동원해서 청

계천 내부에 들어가서 측정한 결과 현재 저희들이 측정한 수치하고 비슷합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면 부임해서 品質試驗所長께서 그 자리에 직접 가보셨어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때 저희들이 측정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에도 장비가 똑같이 있습니다.

○金奇德 委員;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중요한 실험을 할 때는 같이 참석도 해 보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저희들은 그때 부르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金奇德 委員; 밑에 직원들만 시킬 일이 아니고 자꾸 같이 참여해 보고 고민을 같이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죠.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279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에 반입되는 자재가 있습니다. 품질확보는 정밀한 시공을 통해 안전하고 내구성이 높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 많은 불량자재로 인해 구조물 부실공사가 지금 현재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령상 총공사비가 5억 이상 토목공사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품질시험계획대로 자재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데 지금 지적건수 179건 중에서 완료가 89건, 조치 중인 것이 9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재관리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

다. 품질시험소 건설공사현장의 품질확보에 따른 한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品質試驗所長 李益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3쪽에 관계되는 품질시험 의뢰대상에 따른 품질보증계획하고 시험계획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품질보증계획과 품질시험 계획관계는 시공자 공사하는 사람이 작성을 해서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 보증계획 관계는 市 발주공사, 그 다음에 시험계획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시험계획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험소는 관련조례상 30억 이상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검을 나갔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반입된 그 재료에 대해서 불시로 채취해서 시험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지적된 다른 서류관계라든지 기타 총괄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조례에 따라서 2개월내에 그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 보니까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문결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치중인 것이 90건으로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는 거의 조치가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 말이죠?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지금 조치중 그러면 90건이 언제까지 완료  
가 됩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저희들이 점검한 시점부터 2개월내  
에 조치를 완료해서 공문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나 어쨌든 불량자재로 인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구조물에 대한 부실공사가 많이 우려가 돼요,  
지금도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델타적인 확실한 문제점 이런 것이 계  
속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에  
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느끼고 있는 한계  
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문제는 있는 것 아니예요? 조치중  
이라고 하는 90건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가 보면  
사실상 대형공사는 구조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소장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에서 잘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공사 품질시험 5억 이상, 주로 구 같  
은 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실지 시민 교  
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불미로 인해서 사실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면도 많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상당히 공사에 대한 품질관계가 좌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도 많이 느꼈습니다.

○金奇德 委員; 하여튼 조치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모  
순된 문제에 대해서 모든 방법과 대안을 확실히 연구하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技術審査擔當官께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주요자재 중에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멘트제품에 대한 불합격률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2%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재입도시험 불합격률이 32%로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결과가 의뢰부서에 통보되어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건설공사 부실공사발생의 개연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미루어 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대책을 시료채취시 관련규정 준수, 시멘트제품 양생 등 사후관리 철저 등 의례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技術審査擔當官室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技術審査擔當官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시험소장의 소관업무입니다. 소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죄송합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에 대한 불합격 관계는 저희들이 그 골재를 시험해 가지고 바로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 골재가 합격이 되었을 때 그 골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선정시험개념에서 이 골재원을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골재가 불합격되었을 때

다른 골재를 사용할 것이냐, 이와 같은 하나의 선택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합격되었을 때는 골재 같은 경우는 전부 반출하고 다시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다시 입도를 조정해서 시험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실지 골재가 불량한 상태에서 시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은 사실 현장에서 잘 관리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답변이 질의한 내용에서 빛나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시멘트제품에 대한 불합격률이 12%가 되고 있고, 골재입도시험 불합격률이 32% 이렇게 되고 있어서 시험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것을 볼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기동반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불시에 채취해서 불합격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공문을 받아서 현장에서 자재를 반출하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것을 시정해서 하든지 그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에서는 시공자, 발주자가 더욱더 철저히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계속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 관계된 사람들 교육 내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문제점 인식하십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네,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閔鍊植;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소에서 각 현장을 기동반을 동원해서 나가서 점검을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현장은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된 대상은 저희 市長이 발부하는 공사하고, 그 다음에 市에서 市長이 허가 내준 재개발현장이라든지 그런 주민과의 관계되는 현장이고, 그 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요청한 현장, 그런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閔鍊植;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市에서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지금 발주하는 공사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억 미만 이런 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발주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누가 점검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市에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청에 이러한 소규모 공사들이 정말로 많은 부실공사들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구의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맡아버리느냐, 市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나가는 것보다도 市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논의가 된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관련규정상에서 보면 구청장이 저희들한테 요청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구청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할 그런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저희들이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질관리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 가지고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각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순회하면서 구청에 있는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현장 시공자, 감리자를 모아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閔鍊植; 잘 알았습니다. 시정질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金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奇德 委員;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의하면 원론적인 이야기 다 이 책자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의원이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또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지 않아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네.

○金奇德 委員; 그러나 이런 문제의 개연성을 분명히 파악하시라 이겁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또 다른 위원들께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문제점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어서 개선대책을 앞으로 마련하시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지금 점심시간이 도래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난지도 안정화사업 및 1000만그루 나무 식재시 나무가 고사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시험해야 된다 이런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말 서울시민의 혈세로 1000만그루를 심고 또 1000만그루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나무 심어놓으면 죽어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푸른 서울을 만드는 기본계획은 좋지만 가장 중요한 토양의 성분이 안 좋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소관이 어디냐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간에 업무체계를 이루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난지도 일대의 복토사업이나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의 저지대에 무려 215억의 예산을 들여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5m 정도의 복토를 하고 있어요. 성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흙이 없어요. 제대로 된 흙이 없어서 흙을 구해오는

데도 애를 먹고 있어요. 어차피 돈 들여서 사오는 것 제대로 된 흙을 사와야 된단 말이지요.

또 업체는 가급적이면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아파트 현장에 토목공사 하는 흙 파다가 부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질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 식재 후에 고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토양시험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環境管理室 公園綠地課와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 토양에 따른 전문시험 관계는, 저희들은 토질시험만 하기 때문에 주로 물리시험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업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고, 종로구 등 약 50곳에서도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시험내용은 토양의 산도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목에 적합한 PH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나무를 심기 전에 이와 같은 시험을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면 난지도나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의 흙에 대해서 시험의뢰를 했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奇德 委員;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통보해 가지고 공문상으로 받았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 시험결과를 거기에 나온 공문, 어떻게 성분이 나왔으며 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위원님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도로 보수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한 20m 이상 도로의 요철과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해 책정한 2000년도 사업예산은 295억 2,8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스팔트의 요철 등과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한 잦은 소파공사로 인해 시민의 교통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제도의 개선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도로보수의 아스콘 재료의 개선책으로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아스팔트의 포장면 요철과 소성변형을 제거하기 위해 아스콘을 시험시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성변형이 현저히 감소되면 점차적으로 개량아스팔트 및 골재의 최대크기를 변형하여 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험성과분석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때 답변한 내용과 지금 현재 별변동이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金奇德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과 소성변형은 저희 市에서 상당히 큰 우려를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온도가 상승했을 때 소성변형이 심하고 또 중장비나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의 변형이 크기 때문에 승차감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데에 영향을 덜 받는 특별한 아스팔트를 저희 사업소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 종류의 아스팔트를 다양하게 시험시공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개 도로건설사업소를 통해서 여러 종류를 많은 양의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분석하면 어느 것이 또 저희가 빨리 그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 봐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어느 아스팔트로 어떻게 시공했을 때 서울지역에서 가장 소성변형이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놓치지 않고 결과를 분석해서 좋은 배합을 가진 아스팔트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6개 사업소에서 시공한 면적은 약 3,644a에 이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안

이 지금 6개 현장에 시험을 거치고 있다 이 말인가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러한 특별한 아스팔트로 포장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떤 개선책의 방향을 제시하겠나 이런 말씀입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스팔트를 시공해 놓고 당장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계절도 몇 철 지나고 차량도 상당히 지나봐야 그때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奇德 委員; 지금 서울시내를 보면 1년이나 지났는데도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시민들은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어떻게 한 해 두 해에.....

○金奇德 委員;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의뢰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로과손부분을 보완한다 이 말 아닙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도 한두 해 지나봐야 되고 겨울도 지나봐야 되고 또 차량도 상당한 통행이 지난 후라야 어느 것이 좀 우수하다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금년 해 가지고 바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金奇德 委員;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도 신중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알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鍊植; 金奇德委員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技術審査擔當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신기술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소파보수하는 데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기술공법이라고 다 인정을 해 주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공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金奇德委員님께서 질의했던 아스팔트공사 같은 경우도 그러한 신기술공법이 나와 있으면 시험대상에 넣고 어떤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 실시해서 검증을 받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술공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閔鍊植; 소파보수 같은 것, 그런 공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委員長 閔鍊植;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중식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2時 11分 監查中止)

(14時 24分 監查繼續)

○委員長 閔鍊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魯珍委員님.

○金魯珍 委員; 金魯珍委員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임무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인지, 감사기능까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심의위원회나 지금 현재 몇 개 위원회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게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임무가 지금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져 있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技術審査擔當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副市長으로 되어 있고 담당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내지 15인으로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인원으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기술심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발주부서나 혹은 주관부서에서 작성된 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큰 임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것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현장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권한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적을 하는 데에 불과하다, 즉 말해서 점검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용산구나 성동구에 했다, 용산구는 8건을 적발해서 1,940만원에 대한 환수요구를 했고, 성동구는 5건에 2,507만 1,000원 상당히 환수요구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이 하수관 보수공사 공법변경 부적정 4건, 관급자재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안 등 설계변경 부적정 4건 이게 용산구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1,900만원 상당히 환수조치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의 유인물 8쪽과 9쪽에 있는 자치구 설계변경 실태분석 및 기술지원계도에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치구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설계변경 업무에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된 것을 한번 즉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잘 못된 부분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차원에서 금년 상반기에 용산구청과 성동구청을 방문해서 기술지원계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의 경우에는 8건에 1,940만원 상당을 환수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 이러한 돈이 적정치 못하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권고를 했

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보낸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니다. 5월말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처리 결과를 받으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래서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물론 시정을 촉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치구 같은 데 유형이 특별히,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의 행정 자체가 지금은 이원화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자치구에는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市에서 시비를 줘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자치구청장 임의대로 지금 하고 자체 감사실에서 겨우 지적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그런 형태밖에 자치구에서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월등히 자치구보다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다고 보고, 그러한 공사계약이 일반적으로 조건을 위반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시방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응되는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조치가 어떤 제도나 계몽으로만 해서는 될 법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점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좀더 심도 있게 권한을 위임을 받든지 확대해서 하는 그러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되어 줘야지, 일단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것에 약간에 지금 용산구 8건에 대해서 1,900만원 환수조치하는 것에 비추어 거기에 따른 하자나 그 다음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이 금액에는 더 큰 계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기술심사담당관은 지금 4급입니다. 그렇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습니다.

○金魯珍 委員; 4급 서기관인데 비해서 지금 현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입찰까지, 또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建設安全管理本部長은 1급입니다, 또 建設局長은 2급이고.

여러 지금 서울시에 공사를 하는 시행부서들이 지금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 비추어 월등히 직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일을 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심사담당관계서는 지금 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우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는 그러한 어떤 직위나 직급보다는 저희에게 주어진 법령에 따라서 저희한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해 나가는데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담당관의 직급이 낮은 대신에 저희는 바로 副市長의 직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보고 듣고 또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副市長을 통해서 다른 室·局長한테 지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金魯珍 委員;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는 副市長 말고 어느 다른 국에 소속되어서 했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때도 副市長 직속이었습니다. 그때는 副市長 밑에 기술심의관이 있었고 그 밑에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金魯珍 委員; 기술심의관이 2급이었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2급 혹은 3급이었습니다.

○金魯珍 委員; 좋습니다. 부시장 지시를 직접 받아서 거기에서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이렇게 자치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부시장한테 보고해서 부시장이 각 자치구 청장한테 지시하는 그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지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부시장께서도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러한 순회점검반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유형별로 분석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의 도로공사 등 각종 건설사업, 시책사업 추진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계획이 자주 변경되어 그때마다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고 공기가 연장되어 이로 인하여 사업비가 다시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여러 위원들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설계변경의 폐단을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던바, 기술심사담당관계서는 유형별로 원인분석을 상세히 해서 심의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면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83권 3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설계변경을 유형별로 원인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였던바,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3개 본부에 전문검토팀을 구성토록 하여 종합관리하고 있으며라고 비켜나가고, 앞으로 운영을 강화하여 원인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다고 넘어갔습니다.

본위원회가 설계변경의 원인분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안별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사전 준비소홀이나 미비로 인한 것이었는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그 장치가 없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발생의 소지는 없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정밀한 원인분석이 되어야 행정이 발전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하여 펴 나가는 각종 시책들이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은 부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작년 감사시의 답변내용이나 이번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직도 원인분석중이고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강구하는 중으로서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다음 해에도 원인 분석중이고 강구중에 있다고 답변하면서 세월만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고질적인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심사 담당관의 개선의지가 없거나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장악력이나 업무추진능력이 모자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技術審査擔當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魯珍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 변경, 즉 공기가 지연된다든지 사업비가 상당액 증액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부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바도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이러한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특히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현황보고 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업무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발주기관별로 계약금액 조정 전문검토팀을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발주기관 이외에 제3의 부서에서 감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이러한 것에 밝은 사람으로 해서 계약금액 조정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에 이 팀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관한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검토팀의 검토가 축적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형별로 원인이 상세하게 분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각지대가 자치구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자치구의 기술력이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보고자 저희가 순회점검반을 만들어서 자치구에서 설계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우선 해당구청에 교육을 하고 또 전 구청에 전과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월에 방침을 받아서 시작한지 몇 달이 안됐습시다만 이러한 일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액 조정업무가 투명해지고 또한 원인이 분석되어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요인이 사전에 차단이 돼서 상당히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魯珍 委員; 그 중에 지금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건설비가 늘어나고 애초의 공사설계도는 상당히 부실한, 인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의 통과가 됐던 것인데, 심의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은 몇 건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몇 건이다라고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金魯珍 委員; 아까 업무보고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심의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이 현장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현장 사정에 따른 부분도 있고, 여건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느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魯珍 委員; 공법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자잘한 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그먼트였던 것이 철골로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는 돈이 무려 몇 십 억, 몇 백억까지도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애초에 기술적인 심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심의를 할 때 이것이 철골로 갈 것이냐 세그먼트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의에 대해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입찰하는 과정에까지 설계도가 나와서 그 부분을 다 심의를 했다는데 그 심의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전체의

큰 틀이 바뀔 수 있는가 이런 데 의구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된 사안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위원님께서 심의가 부실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몇 건 있었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심의는 거기에서 어떤 안을 성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에서 혹은 설계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안에 대해서 그것이 공학적으로 타당하냐 또 시공할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부실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물론 그것이 병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발주부서의 계획도 조금 부족했고 그것이 또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金魯珍 委員; 아니지, 발주처에서 부적절한 것이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걸려져야 되겠지요. 이 공법 자체는 여기에 맞지 않다, 중간에 가서 분명히 설계변경을 할 것이다 하는 과정까지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전부 지적을 해서 애초에 입찰을 하기 전까지라도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공사가 정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발주처에서 올라오는 것을 거의 의견제시만 하는 식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의견제시가 아니라 상호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金魯珍 委員; 그러면 의견제시보다도 더 약하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아니지요.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

견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을 제시만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발주부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토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金魯珍 委員; 그래서 바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야 되고, 지금 그런 사안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발주처를 강하게 질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하다는 점이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부터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구조상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그 정도라고 하니까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각종 심의사항을 우리 건설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줘야 된다,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면 1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 등이 변경되는 공사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도 사전에 이에 대한 심의사항이 제대로 건설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사후에 업무보고시 심의결과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의전 심의후 결과를 반드시 건설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술심사담당관계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적어도 우리 건설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업무보고 받으면 끝이고, 이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모르는 사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기술심사 담당관계서는 가지고 계신지 여기서 명쾌하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金魯珍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 즉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나면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심의 전에 그 내용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뢰를 받으면 저희 일정기일 내에 심의를 해서 발주부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발주부서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사업의 진도에 대해서 주로 저희한테 심의를 의뢰하는 부서는 건설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히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을 저희가 심의에 특별히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구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金魯珍 委員; 제 기억에 지금 토평간 도로공사에서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놓고 저희들은 감히 그 자체가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그에서 철골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보고하는 데에서 업무보고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공사를 진행중에 세그에서 철골로 바꾸냐, 그 의구점을 자꾸 여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집행부서 하고그쪽 건설회사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한 것인지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공사는 그냥 철골로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라고 하는 자체가 가서 우리는 집행부에 대해 보고받는 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대형 즉 말해서 50억 이상, 100억 이상되는 공사는 위원회에 사전에 우리 언제든지 상임위원장은 주로 위원회에 많이 제시고, 또 거기에 우리 전문위원실이 항상 있고 해서 그래도 해당지역에 되는 위원이나 또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가 그래도 회의를 매달 한 달에 보름 정도를 여는데 과연 위원회를 거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렇게 공사가 늦어지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그 자체가 위원회가 항상 열리지가 않아서 보고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아주 경시하는 풍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발주처와 협조를 해서 적어도 규모가 있는 공사는 설계변경이 가능했을 때 심의사항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 되겠다, 의견을 들어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



요한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기술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다른 발주부서하고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閔鍊植; 꼭 그렇게 시정을 해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알겠습니다.

○金魯珍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부병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시립동부병원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반흠막이 공법에서 당초 CH-파일 토류관 플러스 SCW공법에서 지하연속벽 공법으로 설계변경한 사유와, 당초 설계심의회 이를 검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동부병원 신축설계 변경심의회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98년 10월 16일에 심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지하 3층, 지상 6층에 연면적 2만 2,417 m<sup>2</sup>의 건물을 짓는 공사가 되겠는데 97년 12월 30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에 흠막이 공법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는 지반조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해서 흠막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굴착을 하고 보니까 예상했던 지질조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CH-파일하고 SCW공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굴착공사과정에서 지하수가 과다하게 유출되고, 또 신축부지 주변의 기존건물 등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침하 등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조금 차수성이 높고 구조물에 강성이 큰 지하연속벽 공사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반조건의 변동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이 된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래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죠? 공사비가 늘어났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런데 이것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반이 나쁜 줄 알았으면 원래 또 비싼 가격의 공법을 처음부터 채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얼마나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지는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金魯珍 委員; 지반이 암반인지 지반이 물이 많은 지역인지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사전에 저희가 조사.....

○金魯珍 委員; 그것은 꼭 봐야 아는 것입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물론,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진입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구멍을 한두 개 파가지고 전체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金魯珍 委員; H파일돌판에서 SCW공법 지하연속벽 공법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면 H파일하고 연속벽 공법으로 시행을 했을 때 얼마만큼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魯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鍊植; 金魯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任東淳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東淳 委員; 任東淳委員입니다.

98년말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시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개발 2차용역을 발주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자료수집 내용과 더 실용적이고 효율성있는 지반정보 관리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任東淳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저희가 건설공사를 하면서는 지반조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시추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번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죽 다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반정보를 수집 공유함으로써 지반분석기법을 개발하고, 또 예산을 절감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8년말까지 약 6,500개의 시추지상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6,500개의 지상자료를 가지고 서울시내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반정보 관리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상반기에는 우선 시추 조사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약 3,000공을 수집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집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는 발주를 해서 2001 년도에 각 시행부서에 기능이 향상된 것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추자료조사는 그렇게 수집을 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저희 市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또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자료, 또 민간기관에서 시행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任東淳 委員; 조금 전에 金魯珍委員께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반정보를 정확히 수집함으로써 설계변경 숫자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반정보 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이고 실리적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 줘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알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내진대책이 없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강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된 시설물과 안 된 시설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내진설계에 대한 저희 市의 대책은 특히 작년엔 대만과 또 터키 지진 이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겠습니까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일시에 내진에 견딜 수 있는 시설물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교통부나 철도청 등 중앙부서와 도로공사 등 유관부서의 설계기준이나 보강방안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주기적으로 조사 및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부에서 시설물별로 보강하는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보강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신설하는 구조물이나 따로 보수를 하는 구조물은 그 기회에 일정수준의 내진성능을 갖는 구조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구조물을 일정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정부의 방안과 등급의 기준에 따라서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그러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대책에 대해서 조건부로 허가가 된 것입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신축건물은 법령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그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任東淳 委員; 그러면 내진설계를 한 공사장의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겠죠?

○委員長 閔鍊植; 그러니까 봐요, 우리 任委員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큰 건물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하고 요사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들하고 비교해서 해 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任東淳 委員;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알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양이 많으면 한 군데 정도라도 신축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다음은 신기술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보다 진전된 기술력 향상으로 건설공사의 원가절감과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체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기술이 232건이나 되지만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는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를 좀더 확대 시행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任東淳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신기술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시다만 신기술로 채택되면 발주부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법령에 따라서 해당되는 신기술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고 또 국내의 건설기술이 발전되고,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기술은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심사 및 처리를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232건이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市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신기술 232건 중에

는 저희와 관계가 없는 신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해양에 관련 되는 기술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당히 많은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그러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232건에 이르는 신기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최근 3년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입찰안내서, 공사 발주전 심의 등 총 231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면 모두 조건부로 채택이 되었는데 조건부심의를 해당 의안에 대한 결함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좀더 나은 기술향상과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의요청 부서는 이를 조치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231건의 조건부채택에 대한 이행확인사항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철저히 심의하였음에도 설계 부적정으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3년간 저희가 조건부로 심의를 한 것이 총 231건입니다. 입찰안내서가 12건, 용역 발주전 심의가 108건, 설계심의회가 101건, 공사 발주전 심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로 심의하는 경우는 원안 자체에 그렇게 큰 결함은 없다고 봐서 저희가 조건부로 채택을 합니다. 즉, 아주 결함이 큰 경우에는 완전히 설계를 다시 한다든지 입찰안내서를 다시 작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채택을 하는 경우에는 보완해야 될 사항

을 저희가 전부 지적을 해서 발주부서에 줍니다. 그리고 그 보완이 된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결함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완전을 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사후에 조금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이 추가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심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을 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완을 해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조건부 심의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조건부 심의건수가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심의한 것을 평균을 내면 4건 중에 1건 정도는 재심의를 하고, 나머지 3건 정도는 조건부 채택을 합니다.

○任東淳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건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건부 심의를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 1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심의한 사항을 모아서 세 권의 책자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중 제1권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100페이지에 보면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안내서를 저희가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래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유형별로 하나 하나 문구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용어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을



지적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시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任東淳 委員; 간단한 사항이면 충분히 미리 그런 것을 조건부가 되지 않게끔 해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와야지, 아주 상식적으로도 간단하게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부분도 조건부로 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좀 안 맞잖아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런데 도서의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식견에 따라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이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설계심의회가 중요한 것인만큼 재심의 할 수도 있고 삼심의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구태여 꼭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별것 아니니까 조건부로 붙였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건수로, 그런 부분이 본위원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안으로 채택한 경우는 사실상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안으로 될 만큼 완벽한 것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조금씩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설계변경 부분은 우리 同僚委員님들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플라자 현장시찰을 갔을 때 사실 터파기작업 정도의 진행중임에도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아직까지 여성플라자의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任東淳 委員; 현장 책임자가 이미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계변경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합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변경된다든지 또 커다란 설계변경사항 이외에 현장여건의 규모가 작은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발주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任東淳 委員; 터파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수없이 변경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네,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설계기술심사를 하지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렇습니다.

○任東淳 委員; 제가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니까 직원은 30명인데 약 58건의 정도의 실적이 있어요. 이것이 많다고 봅니까, 적합하다고 봅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물론, 저희 직원이 전부 다 심의위원회의 운영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과된 업무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任東淳 委員;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9억이나 100억이나 겨우 1억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99억이면 기술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부분은 100억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라도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심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금액은 작지만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혹은 공법의 채택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심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任東淳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100억 이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50억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심의범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설교통부령에 규정된 사항인데,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건설교통부와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100억이 넘는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적은 것으로도 인정되는데, 그런 조금 모순된 부분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알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鍊植; 任東淳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技術審査擔當官은 任東淳委員님이 말씀하신 조건부 채택 심의문제를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閔鍊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咸泰浩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咸泰浩 委員; 咸泰浩委員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강북택시미터 검사장 이전을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거기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咸泰浩 委員; 그런데 그것이 2000년 10월말까지 준공예정이라고 했지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10월까지는 우선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내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사가 될 때쯤 해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咸泰浩 委員; 그리고 대형공사 발주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형공사 발주체제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계약관계, 또 건설공사 계획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에 상호 유기적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설계와 시공기간의 적정 또는 부정적, 예산까지도 과다하고 또 과소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 설계변경도 많이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咸泰浩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특히 대형공사를 집행할 하면서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형공사일수록 사업의 범위가 크고 또 인접지역에 혜택을 받는 주민과 피해를 받는 주민간에 차이가 나고 또 공사를 오래 하다 보면 중간에 여건이 변경된다는지 혹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공사일수록 변경에 따른 공기의 지연이

나 공사비의 증액을 방지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고,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착공 후에는 큰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평소 업무보고 할 때나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金魯珍委員님 질문 때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부서에 있는 계약금액 조정 전문검토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두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특히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閔鍊植 委員長, 車元甲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車元甲; 咸泰浩委員님 잠깐만요, 우리 技術審査擔當官이 앉아서 답변하면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장시간인 것 같아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알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공사 심의할 때 제가 한 두번 참여해 봤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전문인들한테 예산까지도 부서에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과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 담당관님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예산에 있어서는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는지, 또 단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또 그 분야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계산까지 전문인인니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시설규모를 많이 축소했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습니다.

○咸泰浩 委員; 처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가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를 하면서는 시설규모를 축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監査院의 감사를 받아서 거의 권고사항입니다.

98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서남권 도매시장하고 수협이 대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시설물을 공유하면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저희한테 권고를 했고요.

또 교통 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과물동의 8개동 연면적 약 9만 6,909㎡에 이르던 것을 청과물동에 7개동으로 면적도 8만 4,013㎡로 축

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구조도 파이프트러스에서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바꾸어서 사업비가 1,077억 800만원에서 968억 300만원으로 109억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의 시설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사전에 저희가 검토가 되지 않은 사유는 이것이 건축계획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방안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咸泰浩 委員; 그런데 문제는 109억을 절감시킨 것이 문제가 아니고 監査院에서 권고사항으로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해서 기본계획 자체를 바꿀 만큼 이렇게 허술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어떤 주관이 있어서 계획대로 했다면 監査院 감사 때 그 사람이 이렇지 않느냐고 권고했을 때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는 상당히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監査院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기관끼리에 걸친 업무에 있어서는 상당한 조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산업협동조합하고 협의할 때 監査院이 중간에서 협의조정을 할 때하고는 업무 처리하는 그런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산업협동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監査院이 중간에 개입이 되어서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의견이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처리가 가능…….

○咸泰浩 委員; 監査院에서 그러면 계획 자체의 문제도 감사를 합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咸泰浩 委員; 그렇다면 監査院하고 사전조율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 정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힘있는 자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監査院에서 권고사항 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던 것이 변경된다면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것을 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까 金魯珍委員이 잠깐 급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어떤 상하의 직위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같은 한 문제를 놓고 협조하고 같이 의논하는 상대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위기관이라도 목소리를 내서 옳은 것은 옳다고 꼭 얘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알겠습니다.

저희가 市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데 외부기관하고 조정을 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사전에 원만히 조정해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공정 자체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아마 변경을 해서 원래 계획공정 보다는 조금 뒤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咸泰浩 委員; 이 모든 것이 하나 하나 그렇게 하면 자꾸 물가는 올라가니까 109억원이 나중에는 감액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액수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자꾸 늦어지면 또 자연 인플레이 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내 임무에서 힘있는 그런 발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品質試驗所長님께서 레미콘 문제를 金奇德委員이 얘기했을 때 제품 자체는 KS품은 공장 내에서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는 갈 수 없고 나와서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사실은 나와서 하더라도 결국은 재심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불합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해서 불합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시험소장 李益柱입니다. 咸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레미콘 관계는 咸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KS제품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관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부기관에서 하고 저희는 현장 도착분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이용해서 30개 현장에 대해서

해 본 결과 7개 레미콘현장에 주로 슬럼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려를 시키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咸泰浩 委員; 매스컴에서 보면 이 현장에서 불합격을 맞으면 저 현장으로 가서 완전폐기 안 시키고 써먹는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사실상 매스컴을 저도 봤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경우는 저희들 기동반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또 송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송장은 생산할 때 물건이 나올 때 컴퓨터에서 바로 뽑아서 보면 거기에 출하시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하고 현장에도착시간, 도착했을 때는 도착시간을 적고 저희들이 나가지 않았을 때는 현장에서 감독이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소장이나 쓰는 사람측에서 사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정성시험이나 현장에서 품질시험 확인 나갔을 때 또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레미콘에 대해서라든지 자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는 서류 내지 부분적으로 물건도 체크해 가면서 저희들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겹에 대해서는 사실은 KS제품이기 때문에 생산자측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양심적인 차원에서 계도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불합격품이라면 폐기처분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폐기입니다, 되돌아 가시오 하고서 그 뒤에 관리를 안하면 공장에 가서 다시 전표 떼다가 다른 현장으로 가면 시간도 맞고 물

타기 했어도 그 현장에서 조금 허술하게 하면 다 받아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는 회사 내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죠?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계도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기동반 나가서 점검했을 때는 일부 사진도 있습니다만 폐기처분한 그런 사진까지 첨부를 해라 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咸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출되었을 때는 끝까지 추적해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둑 하나 열이 못 잡는다고 다는 못 잡겠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감시를 할 때는 그만큼 위축을 받으니까 덜할 것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 있어도.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문제는 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저희들이 장비가 현재 보유한 것이 41종에 246시험항목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험항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설계할 때 기초에 대한 그런 시험관계는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원 자체가 하나의 시험소다 보니까 단순한 시험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연구 시험 내지 설계를 위한 그러한 시험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조직관계에서 연구직과 현재 부합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고요. 현재 상태는 그렇게 부족한 장비는 없습니다.

○咸泰浩 委員;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이런 장비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금액까지 해서 실제 업무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 내역을 보내 주세요. 실질적으로 시험소에서 하고는 싶은데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그리고 867페이지를 보면 99년도 품질관리 실적을 열거해 놓았는데 무엇 때문에 점검을 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료를 요구하면 세부적인 자료까지 주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점검내용만 죽 해 놓고 지도점검 2회 하고 무엇을 했는지, 안전관리부분에서도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을 몇 회 했다고만 되어 있지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점검내용이 없습니다.

또 지적된 것도 어떤 지적을 해서 어떻게 조치됐는지가 없어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 것까지 주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咸泰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車元甲; 咸泰浩委員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任元彬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任元彬 委員; 任元彬委員입니다.

주요시설물의 내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강교량 확장 및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 잠실, 성수, 한남, 마포, 양화대교 등 5개 교량의 총 사업비가 6,759억원 이고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성산, 한강, 반포, 올림픽, 동호, 천호, 영동, 동작대교 등 8개 교량의 총 사업비 1,041 억원인데, 신설 및 전면개량공사를 하는 교량에 대해 내진설 계 기준에 따라 시공을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지금 질의하신 서울시 시설물 중 에서 한강상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여부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17개 교량 가운데 공사중에 있는 7개 교량, 즉 광 진, 잠실, 한남, 마포, 성수, 양화, 가양대교에 있어서는 내진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교에는 반영이 되 어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任元彬 委員; 기준에 따르고 있다면 내진설계기준의 상위 기준인 건교부 주요시설물 내진설계 성능기준 보장지침에 따 라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현재 나와 있는 도로교 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우리 나라에서 지진을 관측한 1905년 이후 5.2 규모의 지진이 2회 정도 발생하였고, 지진이 전국 각 지

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任元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진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성능향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한번 답변을 드렸습시다만 기존 시설물을 일시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가진 구조물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라든가 신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내진성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존 시설물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내진능력을 평가하고 보장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市에 있는 시설물도 차근차근 일정수준의 내진성능을 가진 시설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우리 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내진설계를 미적용한 건축물이나 교량이 있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1988년도라고 지금 任元彬委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설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는 1988년도부터 내진에 대한 것이 규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습시다만 도로교에 있어서는 1992년도부터 내진설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고압가스, 액화가스 저장시설은 1998년도부터 적용이 됐고, 철도시설물의 경우는 1999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원자로와 같은 경우는 아주 일찍이 1960년부터 내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나 수도시설, 또 공항시설들은 금년도 말 정도가 되어야 내진설계 기준이 나와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진설계의 기준이 제정된 연도에 따라서 일부 시설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갖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任元彬 委員; 현재 18개 한강교량 중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는 교량은 어디인가, 아까 7개 교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8개입니다.

○任元彬 委員; 8개입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습니다.

○任元彬 委員; 어디가 하나 더 포함됐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서강대교가 내진설계가 되어서 완료됐습니다.

○任元彬 委員;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교량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방안이 조금 전에 연구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이 부분은 우선 서울시만 일정 수준 이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량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표준적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기존 교량이 어느 정도의 내진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또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하는 방법이나 등급을 상향하는 방법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성능의 향상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또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힘을 합쳐서 지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나 하나 고쳐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교량의 내진성능 강화를 위한 면진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교량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없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任元彬 委員; 현재 서울시 기술직공무원 중에 내진설계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부분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것이 시설물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로 세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러면 자료로 보내 주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만약 기술직공무원의 기술적 검토수준 향상을 위하여 산.학 연구기관을 통한 재교육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지진공학회에서는 저희 같은 발주부서, 유지관리부서뿐만 아니라 설계부서, 시공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간간히 내진관련 교육프로그램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내용을 좀 상세히 보내 주시고, 교육은 연 몇 회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내주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알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내진설계에 대한 건축물 및 교량에 대해 감리단의 내진설계, 감리수행능력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내진은 일단 설계가 되면 그 부분은 시공을 하면서 충실하게 반영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따로 내진설계를 위한 감리단의 어떤 수준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면을 봐서 현장에서 보통 일반시설물을 잘 감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진설계부분도 설계에 반영되면 현장에서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任元彬 委員; 내진설계를 미반영한 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설계는 있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아까 그 부분도 교량부분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교량 이외의 기타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완전히 내진성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구조물이 어느 정도의 내진성능을 갖는지 일단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보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시설물별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부분은 시설물별로 저희 市의 관리부서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건축물은 住宅局이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도로교나 터널은 建設局과 建設安全管理本部가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철도는 地下鐵建設本部和 都市鐵道公社, 또 地下鐵公社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上水道事業本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관리부서에서 일정 수준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진방재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진방재연구소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리고 현재까지 연구소가 참여한 지진대책 실적사업은 있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제가 아는 바로는 시립대학교에 지진방재연구소가 설립된 것이 금년 초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구소가 일정한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연구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두번째, 올림픽대교와 원효대교에 설치된 계측기의 성능은 어떠하고, 어떤 계측장비입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좀 상세히 해서 보내 주셔야 합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이 계측장비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있는지가 지 다 해서 보내 주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알겠습니다. 올림픽대교와 원효대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任元彬 委員; 네.

교량점검통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교량에 설치된 점검통로 설치는 본위원회 알기로는 16개 교량 69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점검주기가 일정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점검통로가 자주 점검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교량의 점검통로는 교량의 점검시에 점검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교량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통로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任元彬 委員; 그러면 교량점검통로는 설치된 현장마다 타입과 설치방식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방서가 결정되어 있는가.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교량점검통로의 시방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러면 나머지까지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시방서가 결정되어 있다면 타입과 설치방식을 지정한 방법은 무엇인가까지도 자료로 보내 주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수중구조물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강교량 수중구조물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설된 점검팀은 공무원이 5명, 전문잠수부가 4명인데 수중구조물 우물통이 570개나 되는데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 언론홍보 후 전시행정만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建設安全管理本部 사무감사시 답변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任元彬 委員; 알겠습니다. 두번째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전문시방서 제작목적은 공사시방서 작성안내서인만큼 정밀시공과 안전한 건설공사를 위해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확대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도 任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市에 설계를 하는 그런 민간업체에는 향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건설공사의 설계에서 발주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자체 자문위원회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실시공의 문제는 기본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마다 부실요인이 발생되고 특히 시공자의 적당주의 등 잘못된 건설관행과 관계공무원 공사비리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부실공사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부실공사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마다 다 단계별로 부실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시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 때는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전문가에게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시에는 일단 성안된 안에 대해서 설계심의 혹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설계의 내실화나 수준향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단계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민간전문 책임감리원을 선정을 해서 현장에 상주해서 착공전부터 설계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또 시공시에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서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서 부실방지를 하고자 현장관리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는 지방서를 저희가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 전문지방서를 제정하고 공공시설물을 설계.시공할 경우에는 이러한 전문지방서를 활용해서 공사지방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공사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통합감리제를 도입하고, 설계변경 점검팀을 운영하고, 또 기술심의 이행확인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건설공사의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실적이 아주 미비한 이유는 부실벌점 제도

가 절차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과 현재까지 부실벌점 대상업체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동안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소한 잘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建設技術管理法에 따라서 부실벌점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부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대통령 은전조치의 일환으로 부실벌점을 전부 다 털어내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부실벌점을 얻은 업체가 집계가 되면 다음 의회 회기쯤에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실벌점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분은 7월초에 저희가 벌점을 부과하고 관련되는 기관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시립미술관 사업계획이 개·보수중에서 증·개축으로 변경된 사유와 당초 설계심의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미술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사업은 기본적으로 구 대법원 건물을 개·보수해서 시립미술관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 건립 당시에 부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나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제고하는 증·개축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후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변경 전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2,900평 정도 규모의 건물이 변경 후에는 지하 2층, 지상 3층 총 3,800평 정도로 약 900평 정도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건물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任元彬 委員; 계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 각종 계량기기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검정 및 검사의 대수, 각 사업소별 민원신고 접수된 대수가 맞습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네, 맞습니다.

○任元彬 委員; 두번째, 민원접수된 대수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 신고 접수된 것입니까? 계량기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계량기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먼저.....

○任元彬 委員; 많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수도미터, 가

스미터, 연료유미터, 오일미터 이것 다 상세히 보내 주세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신고접수된 계량기를 각 구분하여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모두어볼 때 검정 및 검사가 어떤 이유로 구분했는지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정상과 비정상이 있고 또 불량도 있죠? 내가 통틀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간단히 될 수 있겠어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任元彬 委員; 전체 다 있어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시험소장 李益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정상적인 상태는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저울류 이런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512페이지 보게 되면 99년 각종 계량기 검정 실적하고, 또 하나는 넘어가면 계량기의 불합격이 있고, 또 하나는 수도미터 있어요. 수도미터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네.

○任元彬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여기 보면 계량기 검정이 여기는 불합격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검정대수에 불합격, 합격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불합격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앞서 질문한 모두가 민원으로 접수된 계량기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민원으로 접수된 계량기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수도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정상, 비정상.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수도인 경우는 저희들이 접수를 한 것이.....

○任元彬 委員; 정상도 다 민원이 접수된 것이고 비정상도 접수된 것이고.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수도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任元彬 委員; 계량기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계량기는 저희들이 정기검사인 경우는.....

○任元彬 委員; 그것은 신고가 아니라 정기검사 때 밝혀진 것이잖아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렇습니다.

○任元彬 委員;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한 것은 민원접수가 된 대수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신고 접수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미리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구분되었는지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검정인 경우는 저울 등 해 가지고 시민들과 직결되는 18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기검정에 의한 검정을 해서 거기에서 불합격이 된 경우는 수리한 후에 재검정을 하고, 수도인 경우는 수도요금에 많이 나와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민원이 아니더라도 수도요금에 적게 나와서 수도관리사업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수도계량기를 떼어와서 저희한

테 시험을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인 경우는 정상인 경우, 점검해 보니까 정상 이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민원에 의해서 문제된 것.....

○任元彬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 과다하 다든지 검침기가 느릿느릿 돌아간다든지 뭐 어쨌든 완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회사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할 때까지는 정상으로 납품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렇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해 놓은 것이에요. 정상이었는데 설치한 이후에 이런 정상, 비정상이 구분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고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수도미터라면. 그렇지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수도미터 같은 경우는 6년인 경우도 있고, 8년인 경우도 있는데 검정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내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제품 회사가, 수도미터 는 그것이 거의 KS제품입니다.

○任元彬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수도계량기를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수도계량 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 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개당 약 2만원 드는데 전체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 가 지고.....

○任元彬 委員; 어떻게 2만원이 됩니까? 그렇게 싸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수도미터기는 씹니다.

○任元彬 委員;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수도의 용량이 낮아서 따로따로 설치를 했을 때, 그러니까 2개가 설치되는 것이지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렇습니다.

○任元彬 委員; 하나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수압을 높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새로 달겠다 했을 때 조례에 의해서 안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렇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네.

○任元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달았다 하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층별로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계량기 가격은 1개당 2만원이고.

○任元彬 委員; 한 대 설치하는 데 몇 십만원씩 든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 다음에 시공비까지 포함해서는 그것은 개소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지요.

네번째, 계량기는 어느 회사가 서울시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그 회사명을 밝혀 주시고, 각 회사별로 2000년 현재까지 계량기 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

○任元彬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해 주세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민원 접수된 계량기는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검정 및 검사를 실시한 현황자료가 있어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그것은 저희들 각 건별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데.....

○任元彬 委員;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세요.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민원 신고되어 접수된 계량기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술심사담당관은 앞으로 어떤 대책과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계량기 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약 100여 만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작년년부터 금년까지 약 6,000여 대입니다. 민원이 들어온 계량기에 대해서 시험해 본 결과 약 30% 정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검정유효기간이 거의 지났다든지 하는 연한에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대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금년 6월말 부로 금년도에 점검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그 통보를 해줄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부로 보고할 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보고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任元彬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각 회사별 계량기를 서울시에 납품하기 전후하여 철저한 검정 및 검사를 하면 전과 같은 민원인의 신고가 상당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관 담당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납품시의 계량기 검사관계는 이 계량기가 전부 KS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수요가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시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KS제품이기 때문에 시험을 하지 않고 쓴 다음에 6년 내지 8년의 검정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시험을 하든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사실 국민들은 계량기가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고 또 신고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담당 소관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야 그만큼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品質試驗所長 李益柱; 알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車元甲; 任元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鄭在天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在天 委員; 먼저, 질의한 내용과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업무보고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금년에 새로 구성을 했던 말이에요. 전문검토팀도 구성을 하고 여성 전문위원도 보강을 했고.

그런데 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면서 산업계와 연구단체의 연구원, 또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강을 했지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쌍용엔지니어링, 대우 등 업체 쪽에서는 6명씩으로 구성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출신의 인원을 보니까 12명이나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기술심의위원으로 들어온 분은 대개 60세가 넘는 분들이에요. 60세가 넘는 분들은 공사감독이라든가 시공 등 여러 가지 경험측면에서 보면 어떤 점에서 바람직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기술공법이 늘어나고 새로운 공법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건설기술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60세가 넘는 관료적 사고가 짙게 배어 있는 심의위원들이 현대의 건설기술심의에 적합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 분야별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 다른 엔지니어링사에 이동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분야별로 1명씩 넣어 놓았어요.

이런 것들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일견 인정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항구적으로 서울시정의 한 차원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일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대나 대우에서 6명씩 집중적으로 인선을 하고 서울시 전직공무원 출신으로서 12명을 배정하게 된 것은 다른 학계나 연구단체로부터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지,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鄭在天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새로 구성된 6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시는 바가 있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6기 위원을 선임하면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우선 위원의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에 선임을 하면서 총 199명, 그 중에서 외부위원은 186명을 선임했었습니다. 그때 우선 5기와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절반은 신입 인사로 충원을 했고, 절반은 5기 위원 중에서 연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우수인력을 발굴하면서도 여러 분야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학계 연구원 소속 전문가와 산업계 소속 전문가간의 안배

를 약 35 대 65 정도로 해서 산업계 분야에서 조금 더 실무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장년층과 소장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는 저희가 여성위원을 적극 위촉하려고 했고, 저희 일이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시 기술행정예 경험 많은 퇴직자 중에서 일부를 위촉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일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총 열두 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각 부문별로 한두 사람 정도의 인원입니다.

○鄭在天 委員; 그렇게 배정을 한 것 같아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안 되고, 오히려 市에서 충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鄭在天 委員; 일부 서울시 전직공무원들이 기술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시키지 않았느냐, 이것은 기술심의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서울시 전직 공무원들의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확보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기술심의회기능에 조금이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일이라면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쌍용엔지니어링과 대우에서는 6명씩, 다른 기타 엔지니어링사에서는 보통 1명 내지 2명씩 되어 있는데.....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부분도 답변을 제가 하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령별로 놓고 보면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40대가



주축입니다. 40대가 52%를 차지 하고, 그 다음에 50대가 27%, 그리고 60대가 14%, 그 다음에 나머지 30대가 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장·중년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했지요.

○鄭在天 委員; 내용은 다 봐서 알았으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소속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용역업체에는 3명이 참여한 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한 개 업체가 세 사람의 위원이 나왔습니다.

○鄭在天 委員; 쌍용엔지니어링하고 쌍용건설이면 같은 계열회사이고 그러니까 같은.....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쌍용건설과 쌍용엔지니어링은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鄭在天 委員; 대우도 마찬가지로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대우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도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그리고 계열사가 아닙니다.

○鄭在天 委員;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전혀 아닙니다. 주식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말씀드리면 대우엔지니어링에서는 2명의 위원을 선임을 했고, 쌍용건설에서는 세 사람의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鄭在天 委員; 건설쪽도 세 사람이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대우건설에서는 네 사람의 위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래서 나는 이 여섯명씩 선임을 하게 된 것

은 이것을 건설이나 엔지니어링사나 같은 맥락으로 봤고 계열사로 봤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완전히 독립된 회사가 아니고 계열사라면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많은 밀착관계, 어떤 심의내용과의 밀착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계쪽 65%, 그 다음에 학계와 연구단체, 연구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 이쪽은 35%예요.

그런데 35% 이것은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은 35%로 비중을 두고 업계쪽의 심의위원들을 65%로 비중을 둔 것은 업계측과의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게 업체와 밀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잃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동안에는 저희가 한 60 대 40 정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산업계에서 조금더 인력을 충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연구부분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원을 했는데 아직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충원할 경우에는 조금더 학계나 연구원쪽에 있는 위원을 추가로 선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어느 정도 업계쪽의 심의위원들이 들어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너무 비중이 거의 반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

은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에 업계쪽 중심으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연구원쪽에 한 명 나오고 업계쪽에 나머지는 대부분이에요. 많아야 학계나연구원 중에서 두세 명, 나머지는 전부 업계 심의위원들로 지금까지 심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도 지금 40% 이상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분야라든가 조정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심의위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은 남성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두 명 정도 배정이 되고 심의위원들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여성인력 이렇게 확보해서 형식만 갖춰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50%, 60% 확보해 놓으면 뭐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실제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선임을 한 것은 최근이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작년 것부터 제출했습니다.

○鄭在天 委員; 작년에도 20% 이상 있었잖아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여성위원이 적었습니다.

○鄭在天 委員; 18%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작년에는 7%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이번에 보장된 인력이.....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가 2월까지 14%를 확보했고

이번 6월에 21%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鄭在天 委員; 늘려가기만 하지 말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에서.....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심의사항을 보시면 여성위원 숫자가 상당히.....

○鄭在天 委員; 최근 심의위원 나온 것을 보니까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 못했는데 그 문제는 되었어요.

여성인력은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직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인력 확보가 취약하리라고 봤는데 조정이라든가 환경분야에는 상당히 여성들이 섬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알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 다음에 방금 建設安全管理本部 쪽에다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보내 줘서 차질이 오는데, 지금 1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 진단용역에 대한 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도 개정이 되었단 말이죠?○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鄭在天 委員; 법령은 작년 99년 11월에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례는 금년 5월달에 서울시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내온 것은 1종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발주한 것에 대해서 안전관리본부

쪽에서 보내 왔습니다.

이것은 잘못 보내 왔는데 이것 말고 지금 안전관리본부나 서울시 발주부서에서 1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 성과품에 대해서 기술심의 요청한 것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가 한 건 했습니다. 한남대교 안전진단입니다.

○鄭在天 委員; 그 한 건만 왔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심사를 해서 일단 재심의를 부쳐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심사를 하였습니다.

○鄭在天 委員; 작년에 심의에 의뢰를 했어요? 몇 월에 했어요? 확인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하지 말고 과장님이 찾아보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작년 12월 21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鄭在天 委員; 조례 개정되기 전에.....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조례는 개정이 안되었지만 법령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록 사전에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였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러면 建設安全管理本部나 서울시 발주부서에서 1종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성과품을 받은 것 혹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법령 개정된 이후에?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이후에 한 것은 한 건입니다.

○鄭在天 委員; 한 건밖에 없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렇습니다.

○鄭在天 委員; 확인해서 그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을 한 성과품이 나오면 技術審査擔當官이 책임져야 돼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런데 이 건은 진단이 어느 정도 되어서 성과품을 확정하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심의를 의뢰한 것은 한 건이고 앞으로 의뢰가.....

○鄭在天 委員; 의뢰 들어오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발주부서에서 해 가지고 그 성과품이 나왔을 때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는지를 技術審査擔當官이 이 정보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 발주부서가 기술심의를 의뢰하지 않으면 이것은 기술심의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두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알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것을 묻고자 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것 없으면 이 조례 시행하나마나 똑같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建設安全管理本部나 지하철쪽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아마 지하철공사에 일부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러니까 1종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때 그때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알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렇게 해야만이 기술심사담당관쪽과 발주부서쪽과 법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의 성과품을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 부합되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따로 따로 나가게 되면 이것은 법령 개정하나  
마나 마찬가지로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관쪽에서 먼저 확보를 하라는 재  
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발전적 개선추진 이  
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발주부서와 용역사를 대상  
으로 해서 위원회 운영의 만족도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한다  
고 보고를 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몇 번이나 했어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가 매월 그달에 심의가 이루  
어진 건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건별로 합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건별로 하면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  
이라든가 발주부서나 용역사쪽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한 부분  
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확인하기  
좋을 텐데 그런 지적사항들 만족도평가 의견에 대한 것은 여  
기에 개진을 안해 준다는 말이죠.

나와 있는 것 있어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부분은 향후 임시회 업무보고  
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해 오던 사  
항인데, 저희가 조사하는 항목은 우선 심의를 진행하면서 저  
희 담당관실 직원의 친절도가 어떠냐, 그 다음에 위원선임은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걱정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심  
의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심의 지적사항에 대

해서 중요한 것을 지적했느냐 단순한 것을 지적했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 또는 심의위원회의 자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 아마 세밀한 기준을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시키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임시회 때 그런 것들은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 다음에 분기별 위원회 운영결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추진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찾아냈으면 현황까지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보고를 안해 주니까 분기별 위원회 운영을 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鄭在天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분기별로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이러한 이러한 사항을 업무개선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은 지금까지 다 보고를 해 왔습니다.

단, 그러한 것을 명기하지 않고 보고를 했을 따름인데 예를 들자면 오늘 업무보고한 사항 중에서도 5쪽에 설계심의 이행 확인 사후평가제도 개선 이것도 저희가 분기별 위원회 운영결과를 분석하면서 나온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안전관련 심사기능 강화에 있어서도 내진설계 점검표를 작성하겠다 하는 것도 분기별 업무분석한 분기의 내용을 즉 분석하고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어야 되겠



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나서 시행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회 때마다 보고드리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분기별로 업무개선을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것을 요약해서 분기별 운영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운영결과,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들, 그리고 향후에 개선할 문제점들을 분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 다음에 공사실명제는 설계, 공사, 지하매설물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공사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공사실명제 지도점검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도 시행한 이후에, 총 850개 현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적출된 것, 미이행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지, 전부 다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100% 다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사실 建設安全管理本部和 建設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본부와 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건설안전관리본부 부서에서, 그러니까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부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자치구 쪽에 다 할 것이고.

그런데 이 공사실명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제안을 해서 나간 것 아니에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建設局에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鄭在天 委員; 그러면 이 자료를 왜 여기에다 내 봤어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어디 말입니까?

○鄭在天 委員; 감사자료 661쪽.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661쪽에 있는 것은 저희 쪽으로 이것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업무가 어느 쪽에 분류가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建設局에서 종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초기단계부터 업무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建設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것은 보고를 하도록 조치 안 해도 돼요, 그쪽에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기술심의위원 구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한 가지 내가 빠뜨린 것이 있어요.

토목분야, 건축분야 등 각 분야별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분야의 전문가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분야 전문가 5명이면 지금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금 조정, 물가변동금액 조정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심의위원 숫자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까지도 전부 계약금액 조정 감독을 해야 돼요.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지도감독은, 협조는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숫자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시행 공사 중에서 ES 반영비율의 문제점이 많

고, 그리고 계약공사금액 중에서도 항상 감사원이나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누누이 지적 당하고 있고, 이런 건수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초과계약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계약분야의 심의위원들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5명으로 구성해 놓고 있어요. 이 정도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할 의지는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64쪽에 계약관리 5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산업계만의 계약관리위원입니다. 저희가 학계 쪽의 위원을 그때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학계 쪽 위원이 5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구요. 또 최근에 여성변호사 세 분을 따로 추천을 받아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리분야 위원의 수는 총 13명입니다.

鄭在天委員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명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鄭在天 委員; 그리고 각 발주부서별로 계약전담반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鄭在天 委員; 여기에 대한 업무협조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어떤 협조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서 8쪽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본부에 이렇게 계약금액 조정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동안에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조금 더 기능을 강화토록 하면서 우선 기관장 혹은 국장이나 차장의 직할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계약금액 조정업무가 최고 책임자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이런 설계변경이 될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 공사 건별로 계약금액 조정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산하에 도로관리사업소와 정수사업소, 수도사업소가 각각 있습니다. 이런 산하 사업소 순회점검을 전담팀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하 사업소가 발주하는 소규모공사의 설계변경 실태점검이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계약자로부터 들어오는 클레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클레임도 이러한 전문검토팀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는 자치구 설계변경에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팀들간에 협조체제를 저희가 구축해서 우선은 물가변동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지금 물가동향이 어떻다라고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화해서 이 팀들한테 주고 있고, 또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계약금액 검토팀을 운영하면서 주로 발견된 문제가 무엇이더라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자기 지식이 체계화되고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유

지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래요. 계약금 조정문제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 지원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기술직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여러 방면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鄭在天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시키듯이 기술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 교육만 가지고는 현장에서 기술향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신기술이라든가 외국인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론적인 기술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그 기술력과 정신을 같이 습득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몇 년 전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 전문교육기관에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 또는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감리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배워 오도록 하란 얘기입니다. 국내의 건설기술수준만 가지고 백년 교육해 봤자 똑같은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사실이 있어요. 가양대교 건설현장에 책임감리가 와 있었어요. 외국 책임감리단이 와 있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 기술자와 한국인 기술진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니까 기술적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정신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 수준은 한국인 공무원들도 매우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정신무장이 안 되어 있고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력 가지고도 좋은 시공을 해내지 못하고 좋은 감독을 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전체 공무원이 다 나갈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꼭 나가야 할 중요한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그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배려를 한번 해 주었으면 싶어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鄭在天委員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찍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저희가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해서 감리를 한 사례가 3건 있습니다. 즉 가양대교, 성수대교, 당산철교가 그것들입니다.

자세한 기억은 없습시다만 지난 95년인가 96년부터 저희 기술자를 일부 선발해서 이러한 현장에 1년씩 합동근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6~7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년씩 합동근무를 시키고, 또 외국 회사에 선진시찰을

1개월 정도 보내고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인력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견을 보낼 만한 인력의 여유가 없는 것이 저희로 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세워서 가능하면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 점은 기술심사담당관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달린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기술향상을 위해서 실효성 거둘 수 없는 교육을 백 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현장에 가서 이런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車元甲; 鄭在天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技術審査擔當官과 品質試驗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있었던 한강교량 중 내진설계 기준미달인 교량에 대한 향후대책, 불량레미콘의 철저한 조치, 수도권계량기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방지를 위한 연구 필요성 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

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시민본위의 행정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2時 50分 監查終了)

---

○出席監查委員

閔鍊植	崔榮壽	車元甲	金奇德
金魯珍	金善會	金俊明	朴洙桓
李康玉	任東淳	任元彬	鄭在天
咸泰浩	趙泰鎭	姜榮元	洪淳喆

○專門委員

朴勇勳

○被監查機關參席者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品質試驗所長	李益柱